

문 의	특허심사3국 차세대수송심사과	과 장 김일규 042-481-5830 사무관 신성식 042-481-5470
	2016년 2월 16일(화)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15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차세대 먹거리 드론, 특허권 확보 경쟁 치열

- 드론 특허출원, 전년 대비 161% 급증세 보여 -

미래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드론 관련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드론 관련 특허가 총 389건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무려 161%의 급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드론 특허출원은 2012년 이전에는 연간 30여건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에 이어 작년에는 389건에 이르는 등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드론이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 노력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다수의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이며, 이들은 특허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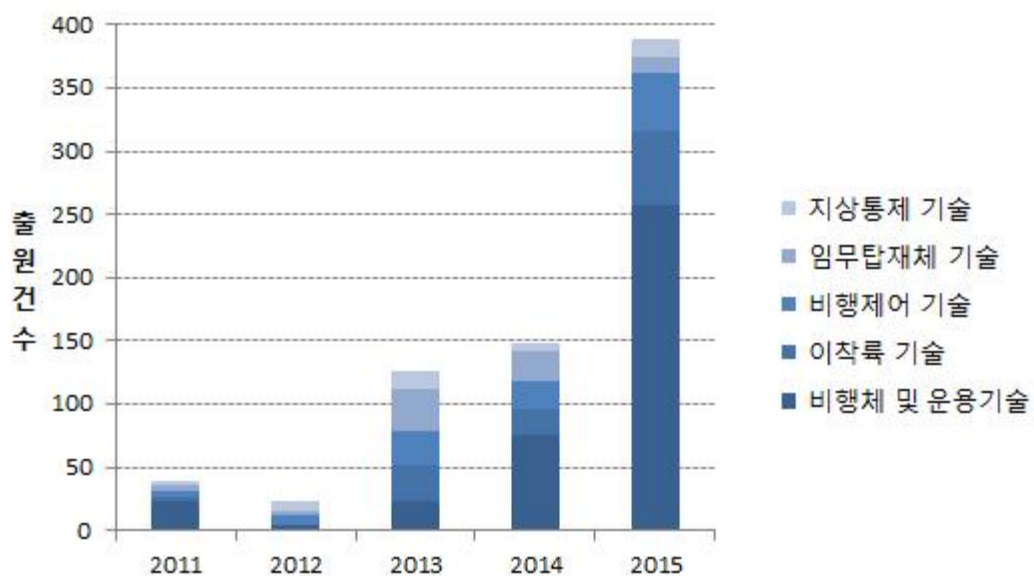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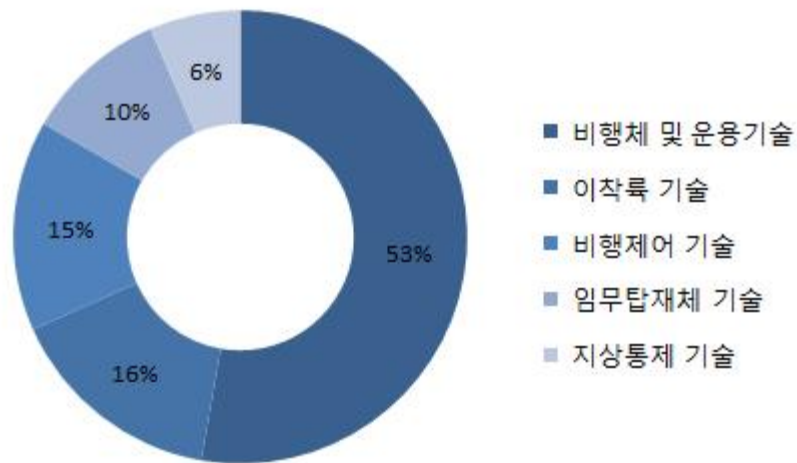
출원되는 세부 기술 분야 역시 다양하다.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분야는 ‘비행체 및 운용기술’ 분야인데, 지상에서 이동하면서 불을 끄다가 필요시 비행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드론과 수상 조난 사고 시 인명구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명장비 투하장치를 구비한 드론 등이 작년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드론을 자동으로 이착륙시키고 충전할 수 있는 이착륙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착륙 기술의 특허사례로는 여러 대의 멀티콥터가 자동으로 착륙하여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등의 특허기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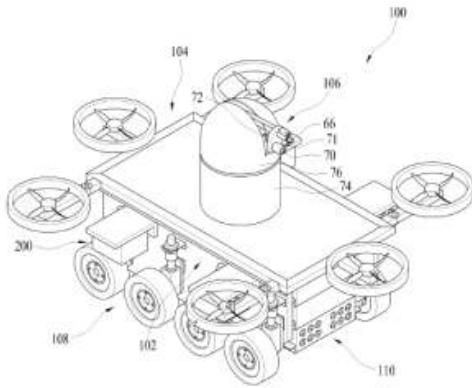
금년 정부 차원에서 드론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드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드론 분야 특허 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일규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앞으로 드론 기술은 우리 일상 속으로 훨씬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전에 정교한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소 계
비행체 및 운용기술	23	4	23	75	258	383
이착륙 기술	4	1	29	21	58	113
비행제어 기술	5	8	27	23	46	109
임무탑재체 기술	4	2	33	23	12	74
지상통제 기술	3	8	14	7	15	47
소 계	39	23	126	149	389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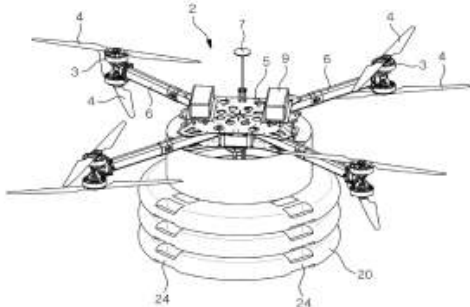


화재진압용 소방드론 (특허 제10-1566341호, '15.11.05. 등록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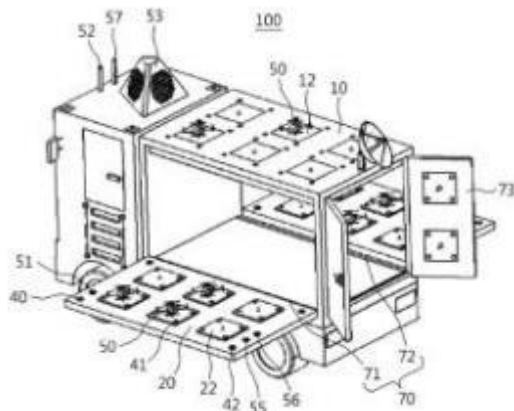
기술개요 : 주택 및 건물, 빌딩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바퀴(108)를 이용한 지상이동과 프로펠러(104)를 이용한 비행을 통하여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

드론방식 구멍장비 투하장치 (특허 제10-1535401호, '15.07.08. 등록공고)



기술개요 : 회전날개(4)와 로터(3)를 구비한 무인비행체에 구멍장비(20)가 포함되어 수상 조난자를 효율적으로 구조

수직무인이착륙 비행체의 충전 및 격납을 위한 운송체 및 방법 (특허 제10-1524936호, '15.06.10. 등록공고)



기술개요 : 다수의 착륙부(12, 22)가 구비되어 여러 대의 드론을 착륙시키고, 충전을 할 수 있으며, 탑재 및 격납 후 이동이 가능한 운송체와 이를 운용하는 방법